

## 공간의 문화정치: 공간적 세계성의 문화적 배치를 위하여

고길섭

《문화과학》 편집위원, 문화비평가

“(『죄와 벌』에서) 라스폴리니꼬프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도스또옌스끼가 왜 하필이면 지하술집이라는 도시공간을 설정하여 라스폴리니꼬프가 그곳을 가게 만들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지하술집은 주인공 라스폴리니꼬프가 ‘자기의 범행이 죄가 아니다’라는 확신을 갖게 만든 중요한 공간이다. 이 도시공간을 통해 도스또옌스키는 라스폴리니꼬프의 욕망을 훑쳐보고 라스폴리니꼬프는 타인들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 술집이라는 공간을 라스폴리니꼬프의 지상에서도 높은 곳에 있는 방과 대조적인 지하에 있다는 것을 금세 눈치챌 수 있다. 특히 이 공간은 비단 어느 건물의 지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 닿아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하실과 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는 라스폴리니꼬프의 욕망이 언제든지 늘 거리를 동경한다는 사실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르멜라도프의 방이 현관 입구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이고 계단쪽으로 문이 나 있고 그 문 또한 닫혀져 있지 않은 것이나, 그리고 소냐의 방이 집의 한가운데에 있고 양쪽으로 트여 있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가 되어 있는 것처럼 『죄와 벌』에서는 거리에 대한 욕망이 꿈틀거린다.

이것은 라스폴리니코프의 다른 세계에 대한 꿈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꿈은 거리에서만, 거리에서 만나는 타인들의 삶과의 접촉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라스폴리니코프가 사는 방이 고립과 폐쇄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지하술집은 군중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개방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열린 공간에서 라스폴리니코프는 해방의 가능성을 얻는다. 마르멜라도프를 만난 라스폴리니코프가 그의 비참한 생활애기를 듣고 노파를 살해해도 좋다는 합법적인 동기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라스폴리니코프가 지하공간에서 지상의 세계에서 통용되는, ‘살인은 죄다’라는 질서에 반항하는 자의식을 얻게 되는 것이다.

(…) 높은 곳에 있는 방에서 거리로 내려오고 다시 지하실에 들러 센나야광장에 이르는 라스폴리니코프의 행보는 정원이 있고 분수가 있는 아름다운 도시건설에 대한 꿈과 노파살해로 이어진다. 라스폴리니코프는 소설 첫머리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더위, 후덥지근한 공기, 도처에 널린 석회, 목재, 벽돌, 그리고 여름의 악취’로 얼룩진 도시에서 탈출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의 탈출은 무책임하게 그저 도망가자는 게 아니다. 라스폴리니코프는 그렇게 도망하되 새로운 도시를 창조하려 한다. 뽀르피리는 라스폴리니코프가 도시의 부나방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라스폴리니코프는 부나방이 새로운 도시에서 죽고 자기는 해방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라스폴리니코프는 마르멜라도프가 말한 소돔 같은 도시인 삐제르부르 그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만드는 도시계획의 성공 여부를 실험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노파살해라는 범행계획을 세운 것이다.”<sup>1)</sup>

## 1. 기호체제와 세계성

공간은 기호체제다. 이 명제는 우선 공간을, 의미를 생산하는 텍스트로

1) 이득재, 『도스토옙스끼를 다시 읽는다』(가제, 미출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공간은 분명 의미의 생산장소이기도 하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전체가 제시되기도 한다. “도시공간은 건축물, 거리, 가로등, 쇼핑몰, 가게, 간판, 아파트, 공원, 그리고 무리를 지어 유동하는 군중 등 여러 표현체들로 가득찬 공간이다. 이들 표현체 속에는 모두 나름대로의 의미들이 형성되어 있다. (...) 의미들로 가득찬 도시경관 역시 텍스트이다. 즉 인간 주체의 산물인 표현체로서의 도시경관에는 다양한 의미들이 담겨 있고, 이 다양한 의미구조의 복합체로서 경관은 읽혀질 수 있는 텍스트인 것이다.”<sup>2)</sup> 그러나 공간은 의미를 생산하는 텍스트로 환원될 수 없는 중층적 기호체제들의 역동적 배치로 구성된다. 다시 말해 공간은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면서 특정한 언표행위와 담론구성으로 해독하고 싶어하는 비의미들의 기호체제적 세계성인 것이다.

공간을 의미생산 텍스트로 독해하는 것은 대개 구조주의 전통, 즉 소쉬르적 언어학 모델에 기초한 기호학적 방법론에 따르는 것이다. 이때 적용되는 원리의 하나가 ‘기표 대 기의’라는 대응항이며, 그에 따른 공간분석은 공간적 기표에 대응하는 공간적 기의, 즉 의미를 산출해낸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학 모델에 기초한 기호학은 이미 의미는 결정되어 있고 그 의미에 따라 공간적 기표들을 어거지로 맥락화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화 해독은 의미작용(signification)의 개념으로 요약된다. 이것은 서양철학의 전통적 사유 이미지와도 관련을 갖는다. 질 들뢰즈는 『프루스트와 기호들』에서 이것을 맹렬히 공격한다. “철학은 모든 탐구를 ‘미리 생각된 결정’ 위에 근거짓는다. 철학의 방법이란 이 미리 이루어진 결정의 소산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sup>3)</sup> 그래서 철학은 사유 안에서 행사되는 폭력이기도 하다. 여기서 말하는 철학이란 플라톤주의의 전통을 말한다. 들뢰즈는 플라톤주의와 맞서 싸우며 형상(figure)으로서의 기호를 미리 결정된 사유 이미지로서의 철학에 대립시키는 프루스트를 부각시키면서, 철학적 사유 이미지에 따르는 명시적이고 규약적인 의미작용은 결코 근본적

2) 김왕배, 『도시, 공간, 생활세계』, 한울, 2000, 133-134쪽.

3) 질 들뢰즈, 『프루스트의 기호들』, 민음사, 142쪽.

인 것이 아니라고 비판한다. 외형적인 기호가 감싸고 있는, 그 기호 속에 함축되어 있는, 그런 의미(방향, sense)만이 오로지 근본적이라는 것이다.

요컨대 들뢰즈는 형상을 통해, 즉 기호를 통해 사유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이제 기호는 언어학 모델에 기초해서가 아니라 본래 자신의 흔적인 형상을 통해 정의된다. 공간이야말로 바로 이 기호의 기억을 되찾아준다. 공간이 의미화 해독으로 환원되는 것뿐만 아니라 언어학적 기호학 모델에 의해서 접근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차라리 기호학은 형상-공간을 질료로 하여 재구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형상-공간이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늘 움직인다. 가령 베아트릭스 풀로미나의 진술처럼, 주택의 창문은 더 이상 벽에 뚫린 구멍이 아니며, 벽을 대체했다. 거기서 바로 공간은 새롭게 정의된다. “공간을 정의하는 벽들은 더 이상 작은 유리창이 뚫려 있는 고풍의 벽이 아니다. 오히려 그 벽들은 비물질화되었고, 새로운 건설기술로 얇아졌으며, 그리고 확장창, 우리의 선들로 대체되었는데, 이제는 이 창이 조망이 공간을 정의한다.”<sup>4)</sup> 이것은, 바꿔 말하자면, (뒤에서 논의할) 공간의 기호체제와 그 세계성의 새로운 변환이다. 풀로미나의 견해에 따르면, 주택에서 벽과 창들의 새로운 기호체제적 배치방식은 근대성의 실천이라는 새로운 세계성을 함축한다.

논점을 다시 정리해보자. 공간을 의미생산의 텍스트로 환원시키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달리 말하여 공간적 실천의 중층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그리고 그 의미의 생산도 의미작용의 결과로 드러내도록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공간의 의미생산 및 그 효과를 부정하지는 게 아니라, 의미가 무엇으로부터 창발되는지에 대해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 나무가 푸르게 변화할 때 그 나무의 ‘푸르게-됨’은 그 나무의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푸름’과는 차이가 있는데, 후자가 사물의 어떤 상태(-임)를 나타내지만 전자는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변화(-됨)를 나타낸다. 이 구별은 매우 중요하다. 사물의

4) 베아트릭스 풀로미나, 박훈태/송영일 역, 『프라이버시와 공공성: 대중매체로서의 근대건축』, 문화과학사, 2000, 20쪽.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신체적인 요소들의 혼합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나무가 푸르다는 것은 엽록소 따위와 같은 특정한 색소들간의 혼합 양상에 의해서이다. 그런데 신체적인 것들은 비신체적이라고 하는, 하나의 신체적 상태와 다른 신체적 상태 사이의 관계 내지 신체의 표면에서의 어떤 효과를 발생시킨다.<sup>5)</sup> 들뢰즈는 이것을 ‘표면효과(surface effect)’라고 부른다. 표면효과는 신체적인 것의 변화를 뜻하지만 결코 신체적인 것은 아니며, 단지 신체적인 것의 표면에서 이루어지는 변화, 즉 ‘푸르러지다’와 같은 것을 말한다. 비신체적인 것, 즉 표면효과라는 개념은 들뢰즈에 있어서 의미의 문제를 새롭게 사고하는 중요한 고리가 된다. 의미란 바로 (신체적 조건 안에서) 비신체적 변화과정들로서의 표면효과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공간에서의 의미는 의미작용의 결과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 신체 자신의 내재적 표면효과—가령 벽, 창문의 새로운 배치관계 및 그 표면효과를 통해 공간은 새롭게 사건화된다. 세계성의 새로운 탄생!—를 통해 창발되는 것이다. 공간적 실천이 의미생산으로 환원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중요하게도 공간이 특정한 의미들을 생산한다는 것은 고정된 기표에 대응하는 고정된 기의의 산출로서가 아니라, 형상-공간적 신체의 새로운 표면효과와 배치, 즉 역동적 생성/변이와 언표행위적 배치과정으로서이다.<sup>6)</sup> 그런데 공간적 신체라 함은 주체로부터

5) 들뢰즈의 이런 논의는 스토아학을 수용하는 것이다. 스토아학파는 영혼이나 성질, 덕, 관념과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신체로 본다. 각각의 신체는 내적인 힘을 지닌 역동적 실체이다. 따라서 스토아학파에 있어서 각각의 신체는 그 자신의 원인이며, 엄밀히 말해서 결과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아학파는 신체들의 표면에 나타나는 어떤 효과들 또는 비신체적인 것들을 발견한다.

6) 가령 감옥이라는 공간은 그것이 기의를 갖게 하는 어떤 기표에 귀착하는 것은 아니며, 내용형식과 표현형식이라는 두 가지 이질적 형식을 갖는다. “예컨대 감옥이라는 하나의 ‘사물’이 존재한다. 이것은 환경의 형성(감금의 환경)이며 또 내용의 형태이다(내용이란 죄수를 말한다). 그러나 이 사물 혹은 이 형태는 그것을 제시하는 하나의 단어에 귀착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이 기의를 갖게 하는 어떤 기표에 귀착하는 것도 아니다. 감옥은 ‘범죄행위’ 및 ‘범죄자’와 같은 전적으로 다른 단어, 다른 개념에 관계되

격리되는 대상화된 공간이 아니라, 주체와 함께 환경화되는 공진화(co-evolution) 과정의 공간형식을 말한다. 따라서 의미가 공간의 표면효과를 통해 창출된다고 하는 것은 주체를 배제해서가 아니라 주체의 언표행위적 효과로서이다.

다음으로 공간을 기호체제로 보려고 하는 것은 공간이란 하나의 기호 공간이 아니라 역사적, 현실적으로 연결되고 이접되는 복수적 기호표현들의 집합적 구성체이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기호도 하나의 단위로서 표면화되는 게 아니라 기호들의 체제(regime of signs)로서 표면화된다. 우리는 기호를 하나의 단위체로 해독하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공간분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다보니 하나의 기표/공간에 대응하는 하나의 기의/의미라는 관념이 일반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호는 이질적 기호표현들이 이웃관계나 상상(相象)관계를 형성하는 공간적 세계성 내에 존재하는 기호체제들로 인지되어야 한다. 요컨대 공간은 기호체제적 사례들의 분포와 배치에 의한 집합적 구성체이다. 영화 <마요네즈>의 공간적 배치의 한 장면을 분석하고 있는 다음 글을 보자.

“모녀간의 세대차이에 따른 갈등과 반목을 다루고 있다. 화면구도상으로는 별 특징 없는 듯이 단순한 미장센으로 보이지만 뜯어보면 재미있어 보이는 구석이 많이 보인다. 우선 전체적으로 심플하고 모던한 가구(소파, 소형 수납장, 벽에 걸린 액자)의 배치가 전부이고 시야 심도도 깊지 않다. 이것은 두 인물의 현재 분위기에 집중하겠다는 의도이다. 소파가 2인용이며, 등받이의 분할이 모녀의 냉전상황을 잘 묘사한다. 그런데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잠근 엄마(김혜자 분)의 뚱한 표정과, 역시 엄마에 대해 화가 나 있지만 그래도 아주 외면할 수만은 없는 딸(최진실 분)의 심상은 엄마 쪽으로 가 있는 발이 설명해준다. 한편으로 이 두 사람은 현재 TV를 시청하는 중이다. 그런데 리모

---

며 이들 단어는 위반, 벌 그리고 위반과 형벌의 주체를 표시하는 새로운 방법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언표들의 형성을 표현의 형태라고 부르기로 하자. 이 두 가지 형태는 18세기라는 동일한 시기에 나타났지만 그러나 여전히 서로 이질적이다.”(들뢰즈, 『들뢰즈의 푸코』, 새길, 1995, 61쪽).

콘은 딸 쪽의 수납장 위(화면 왼쪽 끝)에 있다. 반면에 오른쪽 끝, 즉 리모콘의 반대편 대척점에 엄마의 소지품이 들어 있는 가방이 놓여 있다. 엄마는 자신을 힘겨워 하는 딸에게 늘 “확 내려 가빠린다”고 협박하지만 정작 실행에는 옮기지 못하며, 실상 그럴 생각도 없다. 딸은 리모콘이라는 주도권(엄마를 다른 곳으로 보낼 수도 있는)을 가지고 있지만 한쪽에 내려놓고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읽으면 이 장면이 놀랍지 않은가.”<sup>7)</sup>

이 분석사례는 ‘거실’, ‘등받이가 분할된 2인용 소파’, ‘리모콘’, ‘가방’, ‘엄마와 딸의 태도와 표정’ 등등이 집합적인 기호체제적 사례들로 분포되고 배치되면서 특정한 효과를 생성하는 공간적 세계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공간은 물리적이건 은유적이건, 수학적으로 추상되는 입체형상으로서가 아니라, 기호체제들의 세계성으로 현실화된다. 달리 말해 공간은 아무런 질료나 색깔들을 배합할 수 있는 텅빈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들에 의한 공간형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집을 지을 때 벽돌을 쌓으면서 주택공간을 초기형성할 때조차도 이미 자재들의 배치와 함께 형식화되고 그리고 그 공간의 건축은 이미 완성되었을 때의 공간형식을 설계하고 난 뒤 착공한다. 그리고 그 공간형식은 새로운 세계성의 구도하에 끊임없이 재배치된다. 세계성이 없다면 공간형식도 존재할 수 없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사유의 세계성마저도 사유의 공간형식(언어와 이미지 등)이 없이는 성립불가능하다. 공간형식과 세계성은 기호체제의 현존적 조건이다.

퍼스에 있어서 기호들에 대한 논리적 분석은 문제들을 연속적으로 계열화하고 상황들을 역동적으로 명료화하는 장점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논리학은 발견의 논리라 말할 수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기호란 그것을 앎으로써 다른 무엇인가를 더 알게 해주는 그 무엇입니다.” 다시 말해 기호체제는 세계성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다. 앞의 분석사례에

7) 서정남, 『영화에 나타난 디자인과 라이프스타일』, 《디자인문화비평》 1, 1999, 160쪽.

서의 공간형식과 기호체계는 분석자로 하여금 “모녀간의 세대차이에 따른 갈등과 반목을 다루고 있다. … 현재분위기 … 냉전상황 …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잠근 엄마 … 엄마에 대해 화가 나 있지만 그래도 아주 외면할 수만은 없는 딸 … 리모콘이라는 주도권…”이라는 언표구성으로 주어진 화면에 있어서의 세계성의 한 계열화를 작성하도록 한다. 요컨대 공간을 하나의 등질적 기호로 보고 기표 대 기의라는 대응관계로 파악할 때는 기껏해야 우리는 공간에서 의미해독만을 수행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공간을 집합적 기호체계로 인지함으로써 공간의 문제는 세계성의 수행문제로 전환된다.

여기서 우선은 공간의 세계성이 인간의 영토로 간혀질 수 없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공간이 앙리 르페브르나 피에르 부르디외 등에 의해 사회적 공간으로 정의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사회적 공간은 자연적 공간과의 순환 속에서 혹은 대지와 영토의 흐름들 속에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 내가 서성거리는 방안의 공간도 인간에 의해 건축되었지만 이미 인간이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자연적 대지의 일부이며 비인간적 생명체들의 영토이기도 하다.<sup>8)</sup> 공간이 인간적 배치와 시선에 의해 사회적 의미들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공간의 인간과의 관계 혹은 인간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에 의한 과정으로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은 인간적 배치와 시선을 벗어나 항상 비인간적, 비사회적 실재로서의 생태환경 및 자연적 조건에 의해 지배된다. 인간이 생태환경을 무시하고 자연을 ‘정복’한다는 오만함이 지배된 근대에 있어서도 인간이 설계하고 축조하는 공간은 자연적 조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 공간 속에 공기가 없다면 인간은 몇 초도 안

8) 이-푸 투안(Yi-Fu Tuan)의 경우는 공간은 인간의 신체적인 도식에 따라 명확히 표시된다고 밝히면서 공간조직의 근본원리를 다음 두 가지 사실에서 찾는다: “하나는 인간 신체의 자세와 구조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들 사이의 관계다(친밀하든 소원하든 상관없다). 인간은 신체의 긴밀한 경험을 통하여 그리고 타인과의 긴밀한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생물학적 욕구와 사회적 관계에 적합하고, 또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공간을 조직한다”(이-푸 투안, 구동회/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대운, 1995, 63쪽).



걸려 죽어버리고 말 것이며, 자연적 조건을 무시한 공간의 건축은 우리가 술하게 목도하고 있는 바처럼 대형사고의 원천이 된다. 도시의 대부분의 가정주택들은 무한대의 침입자 바퀴벌레와의 전쟁에 시달려야 한다. 공간 환경을 생성하고 인지하는 것은 인간만의 특권이 아니다. 박테리아도 공간환경의 특정한 특징들을 지각하고 화학적 차이도 감지하면서 하나의 세계를 만든다. 그리고 공간이라 함은 어떤 단일한 질의 물리적 실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물리적, 생물학적, 인류적, 사회적, 언표행위적, 지질학적, 우주적 지층들이 복잡하고 이질적으로 분절되고 혼합되는 다성적 실재들의 구성체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함께 공진화하면서 공간성의 새로운 세계성들을 생성해낸다. 공간은 그렇게 해서 항상 이미 디자인 된다.

하나의 공간은 자신을 구성하는 일련의 기호체제들을 통하여 다성적이며 특이화되는 세계성을 함축한다. 이 세계성은 인간의 시선에 의해 설정되는 소위 세계관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다. 그 안에 인간의 시선이 크게 작용은 해도 그 시선이 공간적 세계성을 구성하는 유일의 원리는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세계성은 인간의 시선 안팎의 집합적 기호체제들의 자기조직적 구도하에서 생성되기 때문이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세계성이란 집합적 기호체제의 구도를 결정짓는 내재적 힘이며, 그 힘은 기호체제를 구성하는 기능, 관계, 배치, 의미, 효과 등에 따라 일관적이고 다성적으로 계열화된다. 세계성이 다성적으로 계열화되는 것은 그것이 기호체제의 사실효과에 따르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실(fact)’이라는 말은 들뢰즈가 “단 하나의 동일한 형상 속에서 여러 개의 형태가 실제적으로 포착되는 것”<sup>9)</sup>으로 정의하는 것, 혹은 비트겐슈타인이 『논리 철학 논고』에서 “세계는 사실들(facts)의 총체이지 사물들(things)의 총체가 아니다”고 말한 바의 맥락이다. 따라서 세계성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의 어떤 표상이 아니라, 기호체제화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공간세계를 만들어나가는 함축적

9) 질 들뢰즈, 하태환 역, 『감각의 논리』, 민음사, 1995, 197쪽.

가능성의 흐름도이다. 이 안에서 인간은 자신의 시선과 동선으로 공간의 세계성을 읽어내고, 자신의 육체와 감각과 인지와 언표로, 즉 자신의 배치로 공간의 세계성을 (재)구성한다. 이것을 우리는 프란츠 카프카에게서 잘 읽어낼 수 있다. 그는 잘못 알려진 것처럼, 불안과 소외의 내면세계를 작품화하는 문학쟁이가 아니라, 들뢰즈가 재해석하는 것처럼, ‘여러 개의 발톱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 프라하의 도시공간, 파시즘과 관료주의가 일상적 육체를 뜯어먹는 막다른 도시공간의 기호체제로부터의 탈주의 돌파구를 수립하려는 표현기계였다.<sup>10)</sup> 인간에 있어서 공간적 세계성의 수행은 단지 주어진 공간형식의 표면효과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특정공간을 넘어서는 공간환경의 (재)구축까지도 포함되는 일이다.

공간을 기호체제로 본다는 것은 결국 그것을 세계성의 문제로 설정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기호체제는 차이와 변이의 흐름들 그리고 연접(conjunction)과 이접(disjunction)<sup>11)</sup>의 접속들에 의한 표면효과를 통하여 공간적 사건, 즉 공간적 세계성을 구현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비평적 수준에서 공간분석을 하면서 어떤 의미의 지도그리기를 한다거나 권력분석을 하는 것은 세계성의 수행문제를 인지하려는 행위이다. 그러나 기호체제는 의미나 권력 혹은 이데올로기로 환원되지 않는 복수적 층위들 혹은 이질적 기호들의 복합적 구성체라는 점에서 세계성 또한 어느 한 코드로만 독점되는 게 아니라, 복수의 입구와 복수의 출구를 갖는 리좀(rhizome)<sup>12)</sup>적 다성성을 갖는다. 리좀은 열린 상황의 체제이다. 공간은 이

10)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소수집단의 문학을 위하여』, 문학과 지성사, 1992 참조.

11) 루이 엘름슬레브(Louis Hjelmslev)에 따르면, pet와 man 두 단어에서 p와 e와 t, 혹은 m과 a와 n은 연접관계이며, p와 m은 이접관계이다.

12) 로널드 보그가 정리한 바에 따르면, 리좀이란 “포르피리오스의 나무로부터 린네의 계통학을 거쳐 촘스키의 문장도식에까지 이어져 내려온, 서구 사유의 일각을 줄곧 지배해온 계통수 구조에 대한 대립항으로 제시된 것이다. 계통수 구조는 그 요소들로 하여금 제한적이고 규칙적으로 연접하도록 만드는 위계적인, 성층화된 총체성들이다. 대조적으로 리좀들은 하나의 통일구조 내에 통합되지 않는 비위계적이고 수평적인 복수성이다.

미 그렇게 움직인다. 다시 말해 어느 한 공간에서 혹은 일련의 공간의 연속들(공간의 인접성, 중첩성, 상상성)에서 어떤 특정한 세계성을 해독한다고 해서 유일하게 그것만이 지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특정한 기호체제라 할지라도 세계성은 열린 상황으로 복수화된다. 따라서 어떤 공간 안에 가시적인 세계성보다도 더 비중있거나 더 폭발적인 세계성이 비가시적으로 혹은 징후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세계성은 우리가 보거나 말하는 것으로서 다 포착되지도 않을뿐더러, 보고 말하는 것, 즉 시선 및 언표 행위는 세계성과 이접적으로 마주치기 때문이다. 또는 어떤 기호들은 기호체제 내에 전혀 통합되지 않고 이질적이거나 반발적이며, 미세하여 보이지 않다가도 큰 사고를 치는 일들도 허다하다. 또는 미시적으로서 자신의 미시적 공간 세계성을 구현한다. 세계성은 복잡성의 과학과도 같다. 혹은 카오스적이다.

따라서 여기서 세계성이라 함은 거시적 단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크고 작게 얽힌 세계성들의 복합체제를 말한다. 어느 작은 공간이라도 거시와 미시 세계성들이 공존한다. 방안의 컴퓨터 세계는 크기로는 작아도 이미 지구촌 세계 수십 억의 인구와 접속되는 거대 세계성의 한 기체이다. 이처럼 공간적 세계성은 그 자신의 공간 안에 갇혀지지 않고 외부와 끊임 없이 관계를 맺는 접속과 탈주, 그리고 내부의 변이적 생성과정인 탈영토화와 탈코드화를 수행함으로써 경계를 허물고 횡단하면서 새로운 공간적 구성을 실천한다. 달리 말해 한 공간을 구성하는 기호들은 공간의 전체성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전혀 이질적인 다른 공간세계와 연결되어 있거나 스스로의 기호체제로 존재한다. 그러면서 분할과 국면에 따라 다른 기호들과 일정한 관계망으로 절합되고 표면효과를 생성하면서 특정한 공간적 세계성에 참여한다. 바로 이런 점에서 세계성은 전체성을 대체하고자 사용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전체성 용법에서는 부분을 전체의 종속요소로

---

그 요소들은 무작위적인, 비규칙적인 그물망을 형성하며, 이 그물망 안에서 어떤 요소이든 서로 연결될 수 있다.”(로널드 보그, 이정우 역, 『들뢰즈와 가타리』, 새길, 1995, 175-176쪽).

파악하지만, 세계성 용법에서는 부분을 일정한 전체에 계기적으로 참여하지만 거기에 종속되지 않는 또다른 궤도를 그리는 독자형식으로 인지한다. 즉 부분들은 전체의 필연적 요소로서가 아니라, 환경적 계기 혹은 맥락적인 장소적 위치로서 기능한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성은 어느 한 심급에 구조적 결정성을 부여하는 총체성을 대체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사실 공간 내 기호체제들의 각 부분들은 이미 그 세계성의 경계를 넘나드는 추상기계<sup>13)</sup>와 접속하면서 공간외적 세계성들을 절합한다.<sup>14)</sup> 이것은 반영이나 표상으로서가 아니라, 세계구성의 부분기계로서이다.

## 2. 자본, 화폐, 권력과 공공공간화 대응

공간은 세계-내-존재들의 유물론적 근거이다. 르페브르는 『공간의 생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사회적 생산관계는 공간적으로 존재하는 한에서만 사회적 실체를 가진다. 사회적 생산관계는 스스로를 공간에 투영하고 또 공간에 각인하면서 공간을 생산한다.”<sup>15)</sup> 그런 점에서 자본은 가장 유물론적으로 공간을 식민화해왔다. 르페브르의 말마따나 공간을 점유하고 공간을 생산하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정치경제학이다. 공간의 세계성과 그 기호체제들은 이미 자본으로 설계되고 코드화되고 있으며, 끊임없이 재영토화되고 있다. 루이 알튀세가 분석한 이데올로기 국가장치론은 공간의 이데올로기적 점유형식에 따른 자본주의체제의 재생산이 어떻게 가능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사실 알튀세가 그토록 강조한 이데올로기 국가장치들은 공간의 세계성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대상

13) 주 19) 참조.

14) “사회적 공간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은 언제나 한 공간을 다른 여타의 공간과 이질적인 것으로 구획하고 부분공간화함으로써…”(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소명출판, 2000, 47쪽).

15) 에드워드 소자, 이무용 외 역, 『공간과 비판사회이론』, 시각과 언어, 1997, 165쪽에서 재인용.

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공간을 이데올로기 지형으로 지나치게 확대할 수 있다는 점과 재생산의 논리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들이 존재하기는 하다. 그러나 그 문제들은 공간의 세계성이 중층적으로 결정된다는 맥락에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어쨌거나 공간의 세계성이 자본화되고 있다는 점은 맑스주의에 기초하여 공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비판을 통해서 비판되어 왔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도 자본의 논리에 대항하는 추상적 공리에 머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대중들의 생활세계를 구성하는 공간의 현실적 세계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작업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나는 그 하나로서 자본과는 다른 각도에서 화폐라는 문제설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화폐는 세계-내-존재의 하나이면서 또다른 그 하나인 대중주체들의 공간적 사용의 질료적 조건에 결정타를 가한다. 공간의 문제를 화폐의 문제로 연동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례를 하나 들어보자. 얼마 전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 그 동안 미술계에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온 미술장식품 설치관련 비리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아파트 등 대형건축물의 미술장식품 설치와 관련, 15억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한 유명조각가를 비롯하여 건축관계자, 화랑대표, 건축미술심의위원, 그리고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된 것이다. 이 사건은 미술장식품 설치를 둘러싸고 최초 작가선정 과정에서 건축주와 화랑과 미술가 사이에서 벌어지는 비자금 조성 및 탈세와 이면계약 및 알선수뢰 관련비리, 작품의 타당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심의위원에 대한 매수비리, 작품설치와 공사비 지급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소장에 대한 뇌물공여비리 등으로 그 범위가 전과정에 걸쳐 있고, 종류가 매우 다양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비리사건은 결국 화폐의 욕망으로 인해 예술표현물과 건축공간/도시공간과 시각환경 등을 둘러싼 공간의 구성이 세계성을 결여하도록 구조화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나아가 이런 식의 화폐의 욕망은 공간적 실천의 새로운 제도도입을 저지하는 데도 암암리에 개입한다.

데이비드 하비는 시간 및 공간에 대한 사유에서 화폐문제를 연계시켰

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화폐는 시간(자기 자신의 또는 다른 사람의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역으로 시간과 공간의 지배는 화폐의 지배로 다시 전환될 수 있다. 여기서 매우 일반적인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난다. 첫째, 화폐, 시간 또는 공간의 구체적인 실제, 형태, 의미를 정의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게임의 기본규칙들을 정한다. 그렇다고 그러한 규칙들을 정의한 사람들이 경쟁에서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력기반을 해치는 규칙을 정하는 경우)와, 반대집단이 이런 규칙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압도하기 위해 그러한 규칙들을 배우고 사용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다. 그렇지만 모든 사회에서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헤게모니는 개인적, 사회적 경험의 물질적 맥락을 통제하는 능력에 의존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화폐, 시간, 공간에 부여된 물질화와 의미들은 정치권력의 유지를 위해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보다 직접적인 문제는 이런 것들의 객관적 성질이 확립되는 사회적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다.”<sup>16)</sup> 그러면서 하비는 사회생활의 관계들을 화폐화하면 시간과 공간의 성질들도 변하고, 또한 공간과 시간의 성질을 수정하는 것은 화폐적 목적의 추구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공간은 욕망의 현존형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욕망의 현존형식을 공간구성으로 변환가능케 하는 조건은 현실적으로 화폐이다. 화폐 없이는 거의 아무 짓도 하지 못한다. 화폐는 공간의 세계성, 즉 표현형식과 내용형식의 구도를 결정하는 물질 조건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공간문제와 관련하여 자본의 축적논리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비판해도 화폐가 초래하는 생활세계의 식민화에 대해서는 그다지 논의하지 않는다. 공간에 대한 접근법에서도 마찬가지다. 나는 자본의 순환계도와 화폐의 순환계도를 동일하게 파악하지 않는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공간의 세계성이 식민화되는 것은 화폐의 욕망에 의해서 더 대중적이고 더 일상적으로 반복된다. 가령

16) 데이비드 하비, 구동희·박영민 역,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1994, 277-278쪽.

앞서 본 것처럼, 공간환경을 둘러싼 관계자들의 비리는 자본의 논리보다도 화폐의 논리에 의해 더 휘말린다. 자가 주택을 짓는 주인은 자신의 가족이 거주할 공간은 좀더 고급스럽게 하되 세입자들이 거주할 공간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화폐에 대한 문제설정은 단순히 비리로 인한 공간구성의 훼손이나 침해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논리만큼이나 그것이 빚어내는 공간형식 및 공간환경의 배치, 기능, 의미, 효과의 문제들을 세계성의 관점에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화폐의 논리는 한편으로는 화폐권력으로 나타난다. 화폐는 가치의 일반적 척도가 아니라 권력으로 교환되는 하나의 상품이다. 이때 화폐권력은 공간권력으로 은유된다. 또 그 반대도 성립한다.

주지하다시피 공간의 권력 문제는 미셸 푸코 등에 의해 분석되었고,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공간에 대한 지배가 사회적 권력의 원천이라는 사고를 르페브르가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공간권력이 푸코가 분석한 판옵티콘(panopticon)과 같은 유형의 위계화되고 중심화된 블록의 배치 말고도 인접성의 블록으로 배치되는 유형이다. 이 공간권력의 배치는 다소 거리를 유지하는 분할블럭들의 입구를 형성하면서도 서로 인접한 후문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카프카에게서 보이는 가장 독특한 지형학으로서, 들뢰즈와 가타리가 『소수집단의 문학을 위하여』에서 시사하는 바이다. 화폐권력과 관련해서도 이 경우를 볼 수 있다. 공간의 화폐논리적 구성은 자본과 국가 등의 거대권력체제에서가 아니라, 관료나 대중들의 생활세계에서 직접적으로 개입되는 문제이며, 또한 관료뿐만 아니라 대중들 자신이 화폐권력을 통해 권력효과를 생산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인접성이라는 공간권력의 지형학은 공간권력이 바로 인접된 공간들의 복수적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7)</sup> 다시 말해 공간권

17) 들뢰즈는 푸코를 연구하면서 언표를 둘러싼 공간의 하나를 연합하고 인접하는 방계적 공간으로 특징지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연합적, 인접적 공간이란 다음과 같다. 각각의 언표는 이행의 규칙들(벡터들)을 거치면서, 상호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언표는 ‘희박’하면서도 규칙적인 복수성과 분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자체가 곧 복수성

력은 생활세계의 연속적으로 인접된 공간적 세계성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공간권력들이 동일한 종류인 것은 아니다. 경찰서의 공권력, 동사무소의 관료권력, 학교의 교사권력, 가정의 가장권력, 사무실의 남성권력 등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으며, 이들은 서로 이질적이다.

그러나 그들의 후문에는 권력의 공간적 배치라는 추상기계가 작동함으로써 공간적 세계성을 권력(재)생산의 기호체제로 구성하면서, 권력사회적 물질적 구축을 인접적으로 공간화한다. 권력장치들은 바로 인접해 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권력이 판옵티콘적 다이어그램<sup>18)</sup>으로 지배자들의 손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대중들의 생활세계 속에서 국지적 공간형식들을 통해 고무하고 야기하며 욕망하고 행사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

---

이다. 결국 언표는 복수성이지, 구조나 체계가 아니다.”(들뢰즈, 권영숙·조형근 역, 『들뢰즈의 푸코』, 새길, 1995, 26쪽). 언표적 공간과 사회적/물리적 공간과는 차이나지만 이 논의는 참조할 만하다.

- 18) “『감시와 처벌』은 판옵티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판옵티콘은 수적 규모가 크지 않고 공간적으로 제한되고 한정되어 있는 조건하에서, 다수의 어떤 개인들에게 어떤 임무나 행위를 부과하는 순수한 기능이다. 그 기능에 목적과 수단을 부여하는 형태들(교육, 보호, 처벌, 생산)이나, 그 기능에 의해 작동되는 형태화된 실체들(죄수, 병자, 학교의 학생, 광인, 노동자, 군인 등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다. 사실 18세기 말엽에 판옵티콘은 이러한 모든 형태를 가로질러, 이 모든 실체에게 적용된다. 권력의 범주가 순수하게 기율적 기능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다. 따라서 푸코는 이것을 다이어그램(diagram)이라 명명하는데, 이는 어떤 특정한 실체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 만큼이나 어떤 특정한 용법으로부터도 분리되어야만 하는 기능이다”(들뢰즈, 『들뢰즈의 푸코』, 114쪽). 푸코가 말하는 다이어그램은 들뢰즈/가타리에게는 추상기계(abstract machine)이다. “복수성은 어떤 제한된 공간에 한정되어 장악된 것, 그리고 관리의 부과는 공간으로의 분배, 시간에서의 질서의 계열화, 공간-시간에서의 구성 등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라고… 이는 무한한 목록이지만, 늘 형성되거나 조직되지 않은 소재 그리고 형식화되거나 목적화되지 않은 기능, 결국 분리될 수 없는 두 변수와 항상 관계를 갖는다. 이 비형식적인 새로운 차원을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푸코는 이것에 실로 정확한 이름을 부여하고 있다. 이것은 ‘다이어그램’이다. (…) 그것은 추상기계이다”(들뢰즈, 앞의 책, 64-65쪽).



지적 공간에 처박혀 있는 게 아니다. 국지적인 동시에 불안정하며 분산되는 권력관계들은 각각의 공간형식마다 배치나 방향을 바꾸면서 굴절, 뒤틀림, 회귀, 반전을 표시하면서 인접화, 중층화된다. 또한 인접된 공간형식들은 권력이 일방적으로 행사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체계모니적으로, 이질적으로 구성되고 경합한다.

여기서 논의한 화폐와 권력의 문제는 공간문제의 중요 부분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단지 한 부분들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들은 공간의 지속적 위기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삼풍백화점 붕괴와 같이 위험사회를 징후하는 물리적 부실공사에 따르는 위기를 넘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공간의 세계성 구성의 실패라는 점에서이다. 여기서 실패라고 하는 것은 공간의 세계성 구성이 자본과 화폐 그리고 권력의 그림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중들의 자율적 욕망의 해방적 구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이다. 특히 그것은 자본주의 원리인 사적 소유의 방식과 일치하는 순환궤도를 그리기 때문에 대중적 공공성의 실현으로서의 공간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오늘날 공간의 문제는 공공영역화, 즉 공공공간화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한다. 사실 공간의 세계성 구성의 실패는 공공성/공공 공간의 위기와 관련된다. 오늘날 공공 공간들은 더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올바른 공공성 개념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즉 공공영역들이 공공 공간의 개념으로 인지되고 배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적 공간 또는 사적 세계로 계산되고 오인된다거나 공공 공간으로 공식화된다고 해도 사적 도구화 등 왜곡된 방식으로 재생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공공 영역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심화되는 공공성의 부재화’로 요약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공공성/공공 공간의 위기인 것이다.<sup>19)</sup> 그리고 그것을 심화시키는 것은 자본, 화폐, 권력이다. 여기에 대중들의 길들여진 욕망도 가세하고 있다.

19) 고길섭, 『사회운동의 새로운 가로지르기: 공공 영역과 공공성의 정치』, 《문화과학》 23호, 2000 참조.

앞에서 사례를 들었던 미술장식품 설치관련 비리사건은 공간의 공공성 개념이 잘못되었고 자본·화폐·권력의 문제로 연계된 총합적인 공간사건이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미술장식품제도’이다. 이러한 제도 자체가 공간적 실천 혹은 공간정의를 왜곡된 방식으로 유도한다는 점에서 일부 문화계에서 ‘미술장식품제도’를 폐기하고 ‘공공미술’ 개념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정당한 일이다. 1%법에 해당하는 건축공간은 소유주는 개인이라 할지라도 도시의 대규모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다수의 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공공 영역에 해당하므로, 거기에 설치하는 미술품은 사적 소유로 귀속되고 건축공간의 과시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는 ‘미술장식품’의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사회 공공성에 기초해서 시민들에게 공간의 공적 의미를 획득하게 하는 한편, 공공적인 시각환경에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미술과 사회가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 ‘공공미술’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특히 문화연대(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는 “공공미술제도의 운영에서는 무엇보다 일차적으로 작가와 시민/지역주민들 간에 현대도시가 야기하는 문제점들을 타개하기 위해 해당 공간이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화적 교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이때문에 공공미술은 예술과 시민사회와의 소통의 단절을 비판하면서 도시 공간에 새롭고 활기찬 소통을 창조하는 중요한 동력으로서 시민사회적이며 참여민주주의적인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sup>20)</sup>고 주창한다.

### 3. 공간의 문화정치: 미학적 구도

공간의 문화정치는 왜 필요한가. 이것은 문화공간의 정치가 아니라 공

20) 문화연대, 『‘미술장식품’ 제도 버리고 ‘공공미술’ 개념 도입해야』, 월간 《문화연대》 2000년 7월호. 자세한 내용은 문화연대(www.cncr.or.kr), ‘환경조형물 제도개혁과 공공미술 정착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참조.

간/장소에 대한 문화정치적 사고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간의 문화정치를 사고한다는 것은 공간의 세계성을 사고한다는 것이며, 그리고 그를 위해 실천적으로는 공간의 기호체제를 재배치하고 변환시켜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나는 공간의 문제를 기호체제의 문제로 보자고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의미화에 치중하는 해석대상으로서의 기호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재구성의 전략을 사고하는 생성과정의 수행으로서의 기호체제라는 관점을 제안한다는 점에서이다. 그런데 굳이 또 기호체제론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공간의 문화정치, 즉 공간의 세계성이 자본/화폐/권력에 의해 장악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만 보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능동적인 차원에서 그것의 표현형식/내용형식에 있어서의 새로운 배치와 변환을 사고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자본/화폐/권력이 수행하는 공간의 배치방식에 대한 분석 및 비판에 정치경제학의 순환논법이 아닌 새로운 매개항의 도입이 필요하다.<sup>21)</sup> 그 새로운 매개항이라는 것은 문화정치 혹은 문화공학<sup>22)</sup>이다. 공간의 세계성 자체가 문화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문화적이라 함은 표현형식/내용형식의 기호체제를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문화과정 자체로 질료화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

21) 가령 케네스 프램프톤은 공간형식의 촉각적인 측면을 복원하고 주건물의 역량을 확장하는 것은 세계적인 기술의 지배에 저항하려는 잠재적인 역량을 암시하는 것이라라고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건축형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촉각적인 요소가 중요한 영역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은 경관에 부여된 우선권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경우 우리는 불안정한 육신이 간직하고 있는 모든 보충적인 감각이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을 고려해야만 한다. 말하자면 빛과 어둠, 더위와 추위 같은 것에 대한 반응, 습도변화에 따른 감정의 기복, 자재에서 풍기는 냄새, 육신이 그 자체의 감금상태를 감지하듯이 대부분의 경우 명백하게 드러나는 석공의 존재, 육신이 마루바닥을 지나칠 때마다 나타나는 걸음걸이와 그것에 관련되는 육신의 관성, 걸음을 걸을 때마다 반향되어 되돌아오는 발자국 소리 등을 고려해야만 한다”(프램프톤, 『비평적 지역주의에 대하여: 저항의 건축을 위한 6가지요점』, 할 포스터 편, 윤희병 외 역, 『반미학』, 현대미학사, 1993, 63쪽).

22) 문화공학에 대해서는 《문화과학》 14호 특집 참조.

/화폐/권력의 공간구성 비판은 이데올로기적 차원을 넘어 테크놀로지적 차원에서 새로운 생산성을 수행하는 문화공학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간의 미학적 문화정치이다. 그것은 곧 공간의 세계성 구성에 있어서 미학적 구도를 배합시키는 문화정치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학적 구도는 단순히 공간형식에 미학적 요소를 가필하는 게 아니라, 공간의 세계성 자체에 미학적 투여를 배치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자본의 힘으로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포스트모더니티에서 볼 수 있는 경관들처럼 자본은 그것을 더 매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sup>23)</sup> 그러나 자본은 문화생산자들의 미적 생산의 자율성을 탈취하면서<sup>24)</sup> 소비사회적 논리로 도시경관들을 스펙터클화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대중들도 자신의 자기조직적 욕망세계를 망각한 채 초코드화하는 그 세계성으로 몰입해 들어가고 있다. 이것은 단지 자본이 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공간의 세계성이 탈사회적으로 식민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다고 소비사회를 단순히 일방적인 물질주의의

23) 공간의 미학적 투여는 ‘일상생활의 미학화’ 기획의 일부이기도 한데, 일상생활의 미학화는 포스트모더니즘에게서만 독특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다. 마이크 페더스톤(M. Featherstone)은 그것이 보들레르와 벤야민, 짐멜에 의해 묘사된 바 있는 19세기 중엽 대도시의 경험들에까지 소급된다고 말한다. 페더스톤은 일상생활의 미학화는 첫째, 제1차 세계대전 시기와 1920년대에 나타나, 자신들의 작품과 저작물들, 심지어는 삶 그 자체를 통해 예술과 일상생활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선을 넘으려 노력했던, 이른바 다다와 아방가르드 및 초현실주의 운동을 산출한 예술상의 반(反)문화를 지칭하고 둘째, 삶을 예술작품화하려는 기획과 연관되어 있고 셋째, 현대의 일상생활에 충만한 기호들과 이미지들의 급속한 운동성과 연관되어 있다고 논한다. 페더스톤, 『포스트모더니즘과 일상생활의 미학화』, 『현대성과 정체성』, 현대미학사, 1997, 289-320 참조.

24) 최근 한국에서 ‘위기 속의 문화’를 주제로 강연한 피에르 부르디외는 오늘날 선진사회의 예술생산계가 전반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현상은 아주 새로운 것이라고 진단한다. 즉, 오랜 시간에 걸쳐 어렵게 얻어낸 예술생산과 유통에서의 자율성이 경제적인 당위의 명목하에 위협받고 있는데, 상업논리가 예술작품 생산과 유통의 전과정에 관여하게 됨으로써 자율성의 원칙이 위기에 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경제적인 당위는 신자유주의 및 세계화를 지칭한다.

원천이라거나 기호가치에 따라 대중들의 욕망성을 일방적으로 포획한다고만 보는 것은 아니다. 마이크 페더스톤은 “광고와 매체, 전시, 퍼포먼스 작업 및 도시화된 삶의 풍경이 제공하는 장관(壯觀) 등을 통해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가공하는 작업은 이미지들을 통한 욕망의 끊임없는 재작업이라는 특징을 갖는다”<sup>25)</sup>고 밝힌다. 소비사회는 사람들에게 욕망에 대해 이야기할 것을 과잉될 정도로 유혹한다. 그러나 문제는 사회적 공간들이 광범위하게 사적 원리에 의해서 지배되고 공공성의 기능이 위협당하면서 공간의 미학적 구도 혹은 대중들의 욕망의 투여가 거기에 포획당한다는 데에 있다. 공간적 세계성에의 미학적 투여는 공간환경의 미적 기능의 강화를 통하여 일상적 인간의 감성적 순환을 미학화하는 한편, 대중들의 생활양식이 유연성, 다양성, 연대성으로 해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미학적 가치를 가지는 것은 더이상 특권층이나 전문예술인들만이 수행할 게 아니라, 생활의 풍부함과 삶의 질을 높이는 대중들의 일상성/육체성/공간성으로 삼투되어야 한다. 경직되고 숨막히는 공간권력적 횡포는 미학적 투여의 배제라는 우리의 근대적 습속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따라서 공간권력은 단순히 정치적 민주화로서 해체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미학적/문화적 권력들의 점거를 해체시키는 것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미학적/문화적 투여를 통한 기능과 환경의 전환이 다차원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지난 9월 종묘공원에서 일어난 페미니스트 아티스트 집단의 ‘아방궁 종묘점거 프로젝트’<sup>26)</sup> 무산사건은 이를 정확히 보여준다. 유럽회와 종친회 등 유교문화적, 가부장제적 전통집단은 종묘공원의 공간적 구성에 있어서 자신의 세계와 전면배치된다 싶은 것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격하게 보였는데, 이것은 페미니즘에 적대시하는 태도의 문제를 넘어 근원적으로는 공간에 대한 반예술미학적 태도이며, 그러한 태도는 다시 공간문화 구성의 경직화/보수화를 악순환시킨다. 이 태도는 그들이 단순히 무지해서가

25) 페더스톤, 앞의 글, 296쪽.

26) 이때 ‘아방궁’은 ‘아름답고 방자한 자궁’의 준말이다.

아니라, 부르디외가 지적하는 것처럼, 특정한 생활양식에 대한 강요가 핵심적이다.

“취향은 abiti(습관)가 된다. 그리하여 다른 취향을 비자연적이며, 따라서 타락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거부하게 된다. 미적 불관용은 가공할 만한 폭력성을 갖고 있다. 다른 생활양식에 대한 혐오감은 각 계급을 갈라놓고 있는 가장 강력한 장벽이라 할 수 있다. 계급내의 동족결혼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이다. 스스로 정통문화를 소유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참을 수 없는 일은 취향에 따라 의당 분리하지 않은 채 오히려 취향들을 모욕적으로 재결합시키는 일일 것이다. 이것은 곧 예술가들과 심미주의자들의 게임 그리고 예술적 정통성을 독점하려는 이들의 투쟁이 얼핏 보기에 그렇게 순진무구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술을 둘러싼 투쟁에서는 항상 특정한 생활양식에 대한 강요가 핵심적인 요구로 자리잡고 있다. 즉 하나의 임의적인 생활양식을 정통적인 생활양식으로 변형시키고 나머지 다른 모든 생활양식을 자의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한다.”<sup>27)</sup>

공간의 세계성을 미학적 투여로 구성한다는 것은 인간의 조건을 미학적 감수성으로 환경화하는 세계성의 새로운 실천을 의미한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또한 공간의 공공 영역적 재구성의 방향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한 공공미술 개념의 도입은 그러한 실천 사례로 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 공간적 실천은 사적 영역의 해체나 생활양식의 단일화를 의미하지 않으며, 공간적 실천에 있어서 집단성에 근거하는 다양한 생활양식들의 공존과 새로운 삶으로의 변형들을 의미한다. 이것은 공공 영역의 실재성이, 우리가 통상 오인하듯 차이들이 제거된 동일성이나 공통분모와는 무관하며, 수많은 측면과 관점들이 동시에 존재하며 문화적, 공간적 이질성과 차이로 구성된다는 사실에, 그리고 그래야 함에 기초한다.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도 공공 영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동 세계가

27) 피에르 부르디외, 최종철 역,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상, 새물결, 1995, 104쪽.

모두에게 공동의 집합장소를 제공할지라도,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의 위치는 상이하다. 두 대상의 위치가 다르듯이 한 사람의 위치와 다른 사람의 위치는 일치할 수 없다. 타자에 의해 보여지고 들려진다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은 각자 다른 입장에서 보고 듣기 때문이다. 이것이 공적 삶의 의미이다. (...) 공동 세계는 오직 이 세계의 관점들의 다양성 속에서만 실존한다.”<sup>28)</sup>

공간의 세계성에의 미학적 구도의 투여도 마찬가지다. 어느 하나의 감각으로 경직화/보편화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낡은 근대적 감각의 논리를 벗어던지고, 차이의 감각들을 그리고 그것들의 소통들을 미학적 구도로 투여하도록 해야 한다. 바로 이 점이 공간의 세계성에 미학적 구도를 투여하는 수행원칙으로 자리잡혀야 한다. 그것은 곧 삶의 민주화/개방화, 공간적 세계성의 유연화/다성화와 직결되면서 인간의 조건의 문제를 새롭게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쉴러(Schiller)는 프랑스 대혁명 시기 미학적 실천을 사회적 위기의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학을 경유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유로 인도하는 것은 아름다움이기 때문이다”<sup>29)</sup>고 진술한다. 쉴러를 받아 허버트 마르쿠제도 “상상력만이 정신의 중심적 능력이고 아름다움만이 인간성에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미학적 기능은 문명을 다시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sup>30)</sup>고 말한다.<sup>31)</sup> 미학적 투여는 미적 수준을 하향평준화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공간의 세계성 자체에 미학적 투여를 배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중들로 하여금 미적 공간성을 육체적 실천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미적 문화교육이 절실하다. 공간연구도 마찬가지로 연계되어야 할 문제이다.

28)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한길사, 2000, 111쪽.

29) 마르쿠제, 『에로스와 문명』, 나남출판, 1996(2쇄), 188쪽에서 재인용.

30) 마르쿠제, 위의 책, 186쪽.

31) 프리드리히 쉴러, 최익희 역,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서한』, 이진출판사, 1997 참조.

#### 4. 공간의 탈영토화를 위하여

하비는 이렇게 말한다. “저항운동들은 보통 공간을 장악하는 것보다는 장소에서 조직하는 일이나 장소를 지배하는 데 탁월하다. 포스트모던 정치에서 강조되는 ‘타자성’이나 ‘지역적 저항’은 어떤 특정장소에서 번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보편적으로 분절화된 공간들 그 어디든지 축적으로 뒤덮으려 하는 자본권력에 의해 쉽사리 지배당한다. 장소별 정치는 실패할 것이 틀림없는 데도 불구하고 호소력을 가진다.”<sup>32)</sup> 우리 사회에서도 장소의 점거는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러나 그때의 장소의 점거는 대개 어떤 요구관철을 위한 저항집단의 물리력 행사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그 해당 공간의 점거는 아니다. 공간의 점거는 기호체제의 배치와 변환, 그리고 해방적이고 자율적인 주체집단의 구성을 통해 새로운 공간적 세계성을 창출하는 데 그 방향이 있다. 다시 말해 공간적 기호체제의 탈영토화와 탈코드화가 역동적으로 촉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항운동이 특히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때는 도심지 점거나 골리앗 투쟁과 같은 장소의 점거로 두드러지지만, 도시빈민의 재개발 반대투쟁이나 생태환경운동 혹은 문화공간운동 등은 장소 자체가 목적이 되는 공간의 문제로 두드러진다. 사실 공간의 점거 없는 수단으로서의 장소의 점거는 권력에 대해 추상적 변화의 시간을 요구하는 역사적 관점으로 단선화된다. 따라서 “우리에게 결과를 숨기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공간이다”<sup>33)</sup>고 말한 존 버거(J. Berger)의 말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장소의 점거이면서도 공간의 점거가 수행되어야만이 자본권력의 재영토화 헤게모니를 약화시키고 르페브르, 하비, 소자 등이 주창하는 역사-지리유물론의 힘이 될 것이다. 파리꿈문은 바로 이 역사적 사건 아닌가?

32) 하비, 「공간에서 장소로, 다시 반대로」, 《공간과사회》 5호, 한울, 63쪽.

33) 소자, 앞의 책, 35쪽에서 재인용.



“파리꿈문은 사회의 생생한 현전이 아니라, 그 사회를 압도하는 스타일의 대대적인 변형으로 인해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그리고 파리꿈문의 축제로서의 성격도 바로 그 점에서 비롯됩니다. 민중들은 갖가지 파괴행위로 도시를 부수는 축제를 벌였습니다. 제9구에 있는 루이 18세의 속죄 예배당을 파괴시켰고, 제11구의 길로틴 대를 불태웠으며, 또 티에르의 저택을 부수었고, 방돔광장에 있던 나폴레옹 동상을 파괴시켰습니다. 민중은 혁명의 의식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모든 재현의 성상들을 파괴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화가 꾸르베는 4월의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장식 직인들로 구성된 ‘예술가동맹’을 결성, ‘정부의 모든 비호와 특권에서 해방된 예술의 자유로운 표현, 과거 문화유산의 보존, 현재의 전 문화적 요소의 이용과 활용, 교육에 의한 미래의 쇄신’을 구호로 새로운 예술운동을 펼쳤습니다. 꿈문은 극장을 ‘모든 악덕의 교육의 장’으로 보고, 이를 ‘모든 시민적 교육의 장’으로 변화시키려 했습니다. 튀일리 궁의 안팎에서는 파리가 함락될 때까지 매일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언제나 공개되었고 밤이 되어도 극장은 어디에서나 만원을 이루었습니다. 콩꼬도르 광장에 퍼져 있는 참호에 시민들은 잔디를 심었습니다. 말 그대로 열정적인 대중들이 넘쳐나고 있었던 것입니다.”<sup>34)</sup>

도식화하자면, 장소의 점거가 요구의 투쟁이라면, 공간의 점거는 욕망의 투쟁이다. 그리고 요구투쟁이 내세워지는 장소의 점거가 재현/표상(대의조직화<sup>35)</sup>)의 정치라면, 욕망투쟁이 내세워지는 공간의 점거는 구성(자기조직화)의 정치이다. 하비는 포스트모더니티 조건에서 화폐가 안정적인 가

34) 서동진, 『파리꿈문: 두 명의 꼬뮈나르, 맑스와 랭보』, 『혁명의 문화사』, 이후, 1999, 102-104쪽.

35) 나는 ‘대의조직화(代議組織化)’라는 말을 ‘자기조직화’라는 용어와 대립적으로 사용한다. 자기조직화는 각 부분이 서로를 만들면서 내재적으로 자기조직화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의미로 칸트가 최초로 사용하였고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오늘날 과학철학이나 여타의 분야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이에 비해 대의조직화는 다른 부분들이 어느 하나의 부분에 대표성을 부여하며 조직되는 대의(재현/표상)체제를 말한다.

치표현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없게 되자 선진자본주의에서 재현/표상의

K C I

&lt;표 1&gt; 공간의 문화정치 관련 몇 가지 사례들

사례공간	장소	공간의 세계성 변형	출처
문화의 집	지역기초 단위	읍/면/동 사무소의 행정공간에서 '지역문화복지와 문화민주주의 구현의 교두보'로 이행(진행중)	김성일, "주민자치증진을 위한 '문화의 집' 활성화 방안", 민예총 문화정책연구소 자료집 1999.7
국군기무사 사령부	서울 사간동	감시와 억압의 권력공간에서 '복합문화전당'으로 이행(제안)	조명래, "국군기무사 이전과 공간활용에 관한 공청회", 문화연대 자료집 2000.6
용산미군기지	서울 용산구	미군기지에서 '시민생태공원'으로 이행(제안)	홍성태, "용산미군기지를 시민생태공원으로", 문화연대 자료집 2000.4
환경조형물	각 공공건축물	'미술장식품' 제도에서 '공공미술' 개념으로 공간사용방식 전환(제안)	문화연대, 월간 《문화연대》 2000.7
종묘공원 (아방궁종묘점거프로젝트)	서울 종로구	유교문화/가부장제의 남성권력 공간에서 여성문화 예술축제의 공간으로 탈영토화(행사시행)	류준화, 월간 《문화연대》 2000.11
자이안트 (웃가게)	인천 제물포역 상가	상업성의 경계 넘는 해방의 소통공간(운영중)	고길섭, 월간 《문화연대》 2000.4
필 (포크카페)	서울 명동	음악적, 공간적 완성도 넘는 열린미학과 탈주의 일상문화공간(운영중)	이무용, 월간 《문화연대》 2000.10
탄광촌미술관	강원도 고한	탄광촌 폐사택을 삶의 흔적 있는 문화공간으로 만들기(행사시행)	임대식, 월간 《문화연대》 2000.9

위기가 초래되었다고 하나 그 위기는 이미 공간이 점거될 때마다 일어난다. 그래서 부르주아권력은 장소의 점거보다도 공간의 점거를 위협시킨다. 그러나 오늘날은 정치적 대중투쟁으로서의 공간의 점거는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으며, 그보다는 문화적 욕망투쟁으로 이행하는 오늘의 조건에서 공간의 문화적 구성을 정치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때 공간의 세계성은 부르주아적-근대적 권력체제로부터 대중적-탈근대적 욕망체제로 이행되어 나갈 것을 함축한다. 이런 맥락에서 공간의 세계성의 새로운 구성은 재현/표상의 이미지를 철거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미학적 구도에서 더욱.

이러한 일련의 기획은 오늘날 더욱 불안정하고 복잡한 상황에서의 수행과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가령 과거의 전투적 대중투쟁 방식에서는 권력의 전복을 위한 반동일시 전략에 기초하였지만, 이제는 탈국가주의/탈

시장주의를 겨냥하는 역동일시 전략에서 국가와 시장을 근간으로 하는 체제와 제도의 변형을 피해야 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권력의 지형에 있어서 정치권력 혹은 지배권력만이 아니라 시민사회 대중들의 공간적 세계성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무수한 미시권력들까지도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다.<sup>36)</sup> 특히 우리는 공간의 기호체제들을 영토화/코드화하고 있는 미시권력의 공간권력—이때는 공간을 장악한 것으로서가 아니라 공간을 배치하고 구성하는 내성적 권력을 의미함—적 배치들도 문제화해야 한다. 그래서 실로 다양한 방식의 공간의 문화정치를 구사하고 연대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고, 그럼으로써 공간적 세계성의 새로운 구성을 위한 탈영토화/탈코드화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공간을 지도그린다. 우리는 그 징후들을 <표 1>의 사례들에서 부분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이 사례들은 대표성이나 영역별과는 무관하며 최근 보아온 것들을 무작위로 제시한 것이다).

36) 이에 대해서는 고길섭, 『소수문화들의 정치학』, 문화과학사, 2000(개정증보판) 참조.